

유리창 1

정지용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琉璃)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어니,

고흔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山々(산의) 새처럼 날아갔구나!

독을 차고

김영랑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훑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 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얼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의 침실로

이상화

‘마돈나’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려는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돈나’오려무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眞珠)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마돈나’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뭇 개가 짖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 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침실로 가자, 침실로!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욱---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燭)불을 보라.

양털같은 바람결에도 질식(窒息)이 되어, 얇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마돈나’오너라. 가자 앞산 그리매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 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불는지---가슴이 뛰누나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마돈나’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네 손에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마돈나’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 이도 없으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마돈나’가없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음은---

내 몸에 피란 피---가슴의 샘이 말라 버린 듯 마음과 몸이 타려는도다.

‘마돈나’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가자. 꼬을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내 침실이 부활(復活)의 동굴(洞窟)임을 네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사람이 안고 궁그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 물결도 잦아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걱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수능특강_문학, 현대시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삼수갑산-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

김소월

삼수갑산(三水甲山)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오고나니 기험(寄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첩첩(山疊疊)이라 아하하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삼수갑산 멀드라 아하 촉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불귀(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

오다 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귀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목계장터

신경림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뒷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도화 1

박목월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초록 바람의 전언

고재중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물 위에 째랑째랑 구슬알을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의 구슬땀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아무려면 어쩐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오월도 청청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심는 날에.

수정가

박재삼

집을 치면,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의, 갈앉은 뜨락의,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갈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그 옆에 순순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에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꽃피는 시절

이성복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싹뿔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난 몸뚱이 갈가리 찢어지고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켜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잊었어, 뺄아낼 테지만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땀길 일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막만한 손으로 뺏은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당신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훗날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저린사랑

정끝별

당신 오른팔을 베고 자는 내내

내 몸을 지탱하려는 내 왼팔이 저리다

딸 머리를 오른팔에 누이고 자는 내내

딸 몸을 받아내는 내 오른팔이 저리다

제 몸을 지탱하려는 딸의 왼팔도 저렸을까

몸 위에 몸을 내리고

내린 몸을 몸으로 지탱하며

팔베개 돌이 되어

소스라치며 떨어지는 당신 잠에

내 비명이 닿지 않도록

내 숨소리를 죽이며

저린 두 몸이

서로에게 밀간이 되도록

잠들기까지 그렇게

절여지는 두 몸

저런, 저린 팔이 없는

거울

이상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께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떡섭섭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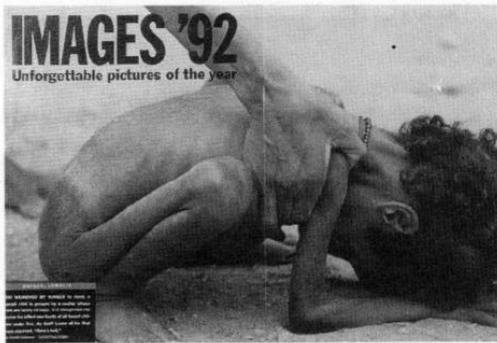
꽃밭의 독백-사소단장

서정주

노래가 낫기는 그 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開闢)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낱 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 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海湓)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이 사진 앞에서

이승하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인류의 죄에서 눈 돌린 죄악을 향한

인류의 금세기 죄악을 향한

인류의 호의호식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소말리아

한 어린이의

오체투지의 예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자정 넘어 취한 채 귀가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게운

내가 우연히 펼친 <TIME>지의 사진

이 까만 생명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자화상 부근

문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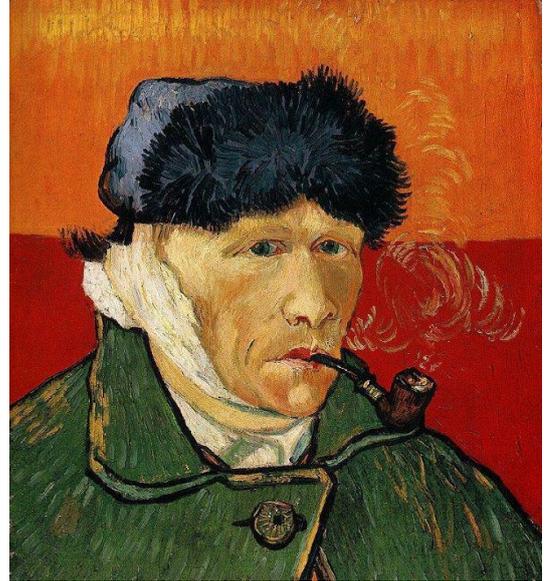
입에 문 파이프에서

진종일 가마귀들이 날아오르는 오후

조요로운 나무 위로

노오란 죽음이 내려앉은 고희의 방을

두드린다



창문처럼 걸려있는 자화상 속에

삼나무드은 아름다운 고뇌를 울부짖다가

그대로 하나의 정물이 되는데



날 흔들지 마!

날 흔들지 마!

바늘 끝에 서있는 슬픈 눈으로

고흐는 내게 한 잔의 독주를 권하며



먼 이별을 예비시킨다

눈

김수영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둔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웁던 그리움 만나

수능특강_문학, 현대시

얼씨구나 부동켜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목호항

송수권

비가 오는 날 고모를 따라 고모부의 무덤에 갔다
검은 배들이 꿈틀거리고 목호항이 내려다보였다
고모는 오징어를 따라 군산 여수 목포 앞바다를 다 놔두고
전라도에서 목호항까지 고모부를 따라왔다
나는 실로 이십 몇 년 만에 고모부를 찾았다
고모부는 질편한 동해에서 돌아와 무덤 속에 잠들었다
폭풍이 치고 온 산과 바다가 울고
독도 바깥 대화퇴 잠든 어장을 우산으로 가리며
늙은 고모의 등이 비에 젖지 않게
나는 우산대에 박쥐처럼 붙어 눈물을 떨구었다
사는 일은 무엇일까?
공동묘지의 벌겋게 까진 잔등이 비에 얼룩지고
비명처럼 황토흙의 빛깔들이 새어나왔다
외짝 신발 하나를 묻고 봉분을 짓고
“오매 오매 날 무얼라고 맹글었는고 짚방석이나 맹글 일이지제....”
흐렁흐렁 울음 속에서도 황토흙처럼 불거져 나온
저 전라도의 간투사(間投詞)들
오늘 나처럼 고모부 내외가 낯설게 이삿짐을 풀던 날도
목호항은 이렇게 흔들리고만 있었을까

낡은 집

이용악

날로 밤으로

왕거미 출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둥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래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찾길이 놓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수능특강_문학, 현대시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보냈다는

그날 밤

저릐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물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 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 꿈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핑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 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향아

신동엽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傳說)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未開地)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여우난굴[골]족

백석

절날 나는 엄마 아배 따라 우리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있는 큰집으로 가면

얼굴에 별 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루에 베 한필을 찐다는 별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신리 고무, 고무 딸 이녀, 작은 이녀

열 여섯에 사십이 넘은 할아버지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우 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 고무, 고무의 딸 승녀, 아들 승동이

육십리라고 해서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
옷이 정하든, 말 끝에 섰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흥녀, 아들 흥동이, 작은
흥동이

배나무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에 반디젓 담그러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삼촌 엄마,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

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 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뽕운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오양간섭 발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 기어 가는 집안엔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씬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구손이하고 ,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흥계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룻목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육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계 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푸른 밤

나희덕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능특강_문학, 현대시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

겨울 바다

김남조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未知)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海風)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

허무(虛無)의

불

물 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수능특강_문학, 현대시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水深)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사무원

김기택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의자 고행을 했다고 한다.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장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의자에 단단히 붙박여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으로 공양을 마쳤다고 한다.

그가 화장실 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의자가 직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는 하루종일 손익관리대장경(損益管理臺帳經)과 자금수지심경(資金收支心經) 속의 숫자를 읊으며

철저히 고행업무 속에만 은둔하였다고 한다.

종소리 북소리 목탁소리로 전화벨이 울리면

수화기에다 자금현황 매출원가 영업이익 재고자산 부실채권 등등등을

청아하고 구성지게 염불했다고 한다.

끝없는 수행정진으로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오랜 음지의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 배를 올렸다고 한다.

수행에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

전화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누르기도 했으며

귀가하다가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밀어 넣었다고도 한다.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30년 간의 장좌불립(長座不立)"이라고 불렀다 한다.

그리 부르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묵언으로 일관했으며

다만 흑독하다면 흑독할 이 수행을

외부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나마 지금껏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의 통장으로는 매달 적은 대로 시주가 들어왔고

시주는 채워지기 무섭게 속가의 살림에 흔적없이 스며들었으나

혹시 남는지 역시 모자라는지 한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의자 고행에만 더욱 용맹정진했다고 한다.

그의 책상 아래에는 여전히 다리가 여섯이었고

둘은 그의 다리 넷은 의자다리였지만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추일서정

김광균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 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잠기어 간다.

별을 굶다

김혜순

사당역 4 호선에서 2 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수능특강_문학, 현대시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여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전천후 산성비

이형기

우리 시대의 비는 계절과 무관하다.

시도 때도 없이

푸른 것은 모조리 갇아먹어 버리는

전천후 산성비.

그렇다 전천후로

비는 죽은 구근을 흔들어 깨워서

자꾸만 생산을 재촉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이 넘치고 넘치는

그래서 미처 다 소비하기도 전에

쓰레기통만 가득 채우는 시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린다고는

누군가 참 잘도 말했다.

한때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독했던

그러한 절망이 도처에서 천방지축으로

수능특강_문학, 현대시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는 시대.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어 깨우면서

그 위에 내리는

시도 때도 없는 산성비.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다.

일회용 비닐우산이 되어버린

절망을 쓰고 있다.

비극이 되기에는

너무나 흔해빠진 우리 시대의 비.

대량생산의 장미를 쓰레기통에 가득 채우는

전천후 산성비 오늘도 내린다.

가을 떡갈나무 숲

이준관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췌기집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덩이들의 혼례(婚禮),
그 눈부신 날개짓소리 들릴 듯 한데,
털새만 남아
산(山)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 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 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山)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山)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잇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거야, 잇을 떨군다.

새 1

박남수

1

하늘에 갈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새가 있던 자리

천양희

앞인 줄 알았는데 새네

저런 곳에도 새가 앉을 수 있다니

새는 가벼우니까

바람 속에 쉴 수 있으니까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프리다 갈로의 <부서진 기둥>을 보고 있을 때

내 뼈가 자꾸 부서진다

새들은 몇 번이나 바닥을 쳐야

하늘에다 발을 옮기는 것일까

비상으느 언제나 바닥에서 태어난다

나도 그런 적 있다

작은 것 탐하다 큰 것을 잃었다

한 수 앞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못 보았다

얼마를 더 많이 걸어야 인간이 되나*

아직 덜 되어서

수능특강_문학, 현대시

언젠가는 더 되려는 것

미완이나 미로 같은 것

노력하는 동안 우리모두 방황한다

나는 다시 배운다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

없으므로 오늘을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 밥 딜런의 노래에서 인용)

오렌지

신동집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잘한 속살을 갈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대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수능특강_문학, 현대시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뚝뚝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사과를 먹으며

함민복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마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영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수능특강_문학, 현대시

흙에서 멀리 도망쳐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